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에 관한  
신체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오 누 리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에 관한

신체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오 누 리

# 인 준 서

오누리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현 시대는 ‘요즘 괜찮니?’ 라는 질문에 ‘괜찮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드는 시대로, 마스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난과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을 다루는 사례들이 연일 쏟아져 보도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숨 한번 돌릴 수 없는 팍팍한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고통을 감수한다. 더 많은 발전과 이윤 창출을 위해 개인의 고통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차곡차곡 쌓아 마음속에 응어리를 키워간다. 이러한 마음속 응어리는 스트레스, 좌절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고 심리적 위축과 자신감 결여로 자괴감에 빠져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

본인은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현대인의 아픔과 불안에 집중하였고, 반복된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변형된 인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여 불안과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곪은 상처를 터트릴 수 있는 마음의 치유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리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2017년 석사학위 청구전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관해 작품 형성배경을 서술하였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신체변형 표현방식과 색채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Ⅲ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발전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현대사회의 심리적 불안 .....	3
2) 트라우마 .....	5
3) 치유와 극복 .....	6
2. 작품의 표현방법 .....	7
1) 신체변형과 왜곡 .....	7
2) 색채 .....	9
3. 작품 분석 .....	11
III. 결론 .....	30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잠식되다, 아이소핑크, 59x50x183(cm), 2017 .....	11
【작품 2】 연결, FRP, 21x45x53(cm), 2017 .....	13
【작품 3】 사색, FRP, 합판, 64x51x67(cm), 2017 .....	15
【작품 4】 눈물, FRP, 30x17x89(cm), 2017 .....	18
【작품 5】 반지, FRP, 23x50x95(cm), 2017 .....	20
【작품 6】 잠식, FRP, 91x42x13(cm), 2017 .....	22
【작품 7】 은폐, FRP, 80x108x183(cm), 2017 .....	24
【작품 8】 꽃다발, FRP, 21x34x79(cm), 2017 .....	26
【작품 9】 흑 에세이, 나무, 레진, 26x24(cm), 2017 .....	28

## 도 판 목 차

【도판 1】 장샤오강, <혈연- 남매>, 캔버스에 유채, 127.3×98cm, 1996 …… 9

【도판 2】 장샤오강, <혈연- 대가족>, 캔버스에 유채, 150x190cm, 1999 …… 9

# I. 서 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6년 이후 65년 급격한 산업화 시대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세대<sup>1)</sup>는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가며 노력을 한 만큼 당당히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었어도 개인의 역량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던 시대였다. 하지만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전반적인 국가 경제력은 상승해서 기본적인 생활은 여유가 생겼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감도 같이 상승했다. ‘노후자금’이나 ‘복지’와 같은 단어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대변하는 항목들로서 현시대는 너무나 급격하게 흘러갔고, 성실하게 일하며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되는 원리에는 맞지 않는 시대로 변화하였다. 2016년 유엔(UN)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부터 5위까지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또한 통상 예상되는 바와 달리 중앙아메리카는 ‘불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는 14위에 올랐다. 미국은 13위, 일본은 53위였고, 한국은 58위를 차지했다.<sup>2)</sup> 이 보고서에서는 행복지수는 경제적 요소로 측정될 수 없고 부유할수록 행복한 것은 아니었으며 평등한 사회가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취업난, 빈부격차, 극심한 경쟁문화 등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씁쓸한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

1) 베이비부머세대(baby boom generation) 출생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을 베이비붐(baby boom)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베이비붐이 일어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로,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란 미국에서 이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높아졌고, 경기는 호황을 맞았다.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2) 홍기훈, EPOCH TIMES, 2016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출발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빼고 삶을 논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 치열한 승패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압박으로 내면의 응어리를 만들어 갔고, 점점 커지는 응어리로 인해 고립되었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기형적인 신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상처받은 쓸쓸한 현대인의 초상으로, 인간의 본질적 공포와 삶의 불안한 심리를 왜곡된 인체를 통해 보여주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카타르시스 요법’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의 묻혀 있는 응어리를 해소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아 감상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배경과 표현방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첫째,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척도와 그 배경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이라는 인간의 심리와 그로인한 내면의 상처(트라우마)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심리적 불안감과 내면의 상처를 신체변형이라는 형태적 특징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서술하고, 상처받은 현대인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인 작품의 형태와 색채의 특징, 의미, 제작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 형성배경

#### 1) 현대사회의 심리적 불안

2010년 발간된 김난도 저자의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제목은 한때 유행처럼 쓰였던 말로서, 20대의 끊임없는 노력과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의 시기를 말하며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깨우쳐 주는 말이었다. 하지만 모순된 사회구조에서 청년들은 그저 청춘이니깐 아파서라도 따라오게 하고 싶은 기득권의 바람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유명 코미디언은 SNS에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야’ 라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일침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더 이상 청춘이라는 단어로 현대인의 아픔을 당연시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의 질이 낮은 사회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그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실패자로 분류한다.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뒤쳐진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과부하, 과로로 피로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다. 부적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불안증세의 일종인 공황장애<sup>3)</sup>까지 발생하게 된다. 불안이라는 증세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든다.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

3)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발작(panic attack)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이다. 공황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증상이 동반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용어사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는 심리적 증상과 함께 이유 없는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숨 막힘, 두근거림, 압박감 등 각종 신체증상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치료 받은 국민이 2016년에 약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흔한 정신질환이다. 공황이나 공포장애를 포함하는 불안장애는 인류에서 가장 흔한 정신장애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0명 중 1명 이상이 스트레스성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장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대 스트레스질환으로, 방치될 경우 우울증과 무기력, 외로움,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 자해와 심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마음의 병이다.

미국 정신의학자 홀즈(Holmes1976)는 외부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회재적응척도(the Social Readjustment Scale : SRRS)<sup>4)</sup>를 개발하여 생활 변화 스트레스를 43개의 항목으로 수치화 했는데, 가장 강도가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망, 그 다음이 이혼, 별거 순이고 부모형제 등 가까운 친척의 사망 등이 강한 충격요소라고 보여준다.

홀즈의 ‘사회재적응척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중한 사람의 부재 즉,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불안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자연의 섭리이고 피해갈 수 없는 법칙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헤겔, 키에르케고르, 니체 등 수많은 철학자들의 저서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핵심적인 고뇌, 불안, 공포로 설명하였고, 인간이 명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불명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과학적 성과나 예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억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sup>5)</sup>

---

4) 홀즈(Holmes 1976)워싱턴 정신의학자로 북미임상의학지에 발표한 논문으로, 생활환경으로부터 얻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43항으로 수치화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심인성질환에 걸리는가를 밝힌 연구이다.

5) 셸던 솔로몬, 제프 그린버그, 톰 피진스키 공저, 「슬픈 불멸주의자」, 흐름출판, 2016, p24

현실에서의 압박, 사회적 거부, 비난과 비판, 비현실적 기대에서 오는 자기 상실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죽음공포증으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로 살아간다.

본인은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시각으로 현대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공포와 불안이라는 감정을 단면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스스로 문제에 직면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자기극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2) 트라우마

본인에게 죽음이라는 공포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인은 엄마가 아픈 환경에서 자라왔고 엄마의 아픔에서 오는 불안함을 그대로 전달받으며 살아왔다. 이러한 유년시절의 환경은 엄마의 부재, 죽음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상기시켜 주었다. 죽음의 공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은 외부자극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편두통과 뒷목 통증이라는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편두통은 심각한 병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 머리뒤쪽에 생긴 멍울이 점점 커지면서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 정체모를 멍울(혹)은 임파선염이었지만, 병명을 몰랐던 유년시절에는 현실을 왜곡시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가중시켰다.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sup>6)</sup>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 그 자체보다는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다른 무언가에 관한 내적 갈등과 상처의

---

6)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로 정신분석의 창시자이다.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행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꿈·착각·해학과 같은 정상 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다.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변형된 표현이라고 말한다.<sup>7)</sup> 즉, 개인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시간이 흘러 망각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서 인간을 병들게 하고 상처 입힌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지만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을 ‘트라우마(trauma)’라고 하는데, 트라우마는 의학용어로 외상,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이라 한다.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울증, 스트레스 등 불안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난다.<sup>8)</sup>

### 3) 극복과 치유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한다. 결혼식장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만,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다. 죽음이 주는 공포 때문이다. 죽음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죽음의 공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예술, 종교, 언어, 경제, 과학의 발달을 이끌었고,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 행동의 기저에 있는 주된 원동력인 셈이다.<sup>9)</sup>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포와 맞서 싸우지 말고 공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적 외상의 근원은 기억하기 싫은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망각된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일상을 배회한다. 1893년 프로이트의 ‘카타르시스 요법 (cathartic method)’에서 이러한 정신적 외상 치유 방법으로 기억하기 싫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문제에 직면해야 된

7)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입문/꿈의 해석」, 김양순 옮김, 동서문화사, 1988, p372-386

8) 트라우마(Trauma),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9) 셸던 솔로몬, 제프 그린버그, 톰 피진스키 공저, 「슬픈 불멸주의자」, 흐름출판, 2016, p8

다고 정의했다.<sup>10)</sup> 카타르시스란 정화와 배설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정신분석학에서는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말한다.<sup>11)</sup>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을 남에게 털어놓았을 때 카타르시스(해방감)를 느끼는 이유는 받아들이기 싫은 기억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정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은 기억하기 싫은 기억 즉, 마음의 상처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과 치유과정은 개인에게 있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가 된다.

본인은 프로이트의 카타르시스 요법을 바탕으로 작업을 통해 죽음의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다. 【작품 5】, 【작품 6】, 【작품 8】은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내용이다. 기이한 형태로 자라난 흑이 꽃과 반지 등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추구하는 이상향을 담아 표현하였다. 전래동화 흑부리 영감에서 흑 떼려다 흑 불인 격이 아닌 ‘흑’ 또한 본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나아가는 순응적인 태도로 접근하였다.

## 2. 작품표현방법

### 1) 신체변형과 왜곡

고대문명부터 인체라는 주제는 예술에 있어서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인체가 주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은 많은 예술가들이 인

---

10)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입문/꿈의 해석」, 김양순 옮김, 동서문화사, 1988, p425-439

11) 카타르시스(Catharsis),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체를 표현한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기형적으로 변형이 된 인체에서도 아름다운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남들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몸은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게 만든다.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어색함과 당황스러운 감정은 당연하다. 하지만 본인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인체의 아름다움보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고, 솔직한 자아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름다움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본인은 인체에서 변형된 형태로 보여주는 혹은 스트레스와 죽음에 대한 불안한 감정의 응집으로 보았고, 억제된 내적감정을 대변하는 매개체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작품 1】에서 나타난다. 본인이 유년시절 느꼈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으로, 얼굴 절반이 흑으로 가려 앞을 보지 못하고, 몸 전체가 흑으로 뒤덮여 움직일 수 없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과 고립된 느낌을 준다. 붉은 색의 강렬한 흑 덩어리들은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은 것처럼 둥근 주머니 모양으로 나타내었다.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은 살짝만 건들어도 큰소리를 내며 터져버리는 성질처럼 상처로 부풀어 오른 변형된 자아 또한 한계에 부딪혀 사라질 것 같은 심리적 불안함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작품 2】에서 손과 발이 흑으로 연결되어 움짱달짝 못하는 상황은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작품 3】에서 손에서 뻗어가는 거대한 흑으로 마치 족쇄를 채운 것처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나타내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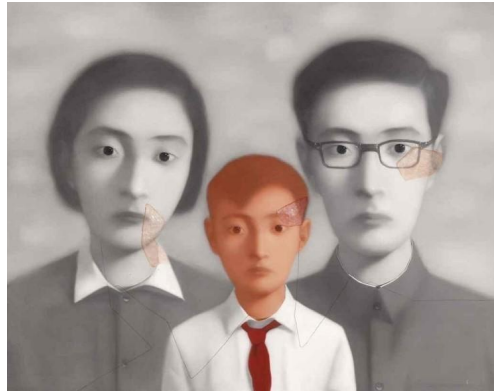
## 2) 색채

본인의 작품은 모두 색을 갖고 있다. 단색에서 보여주는 인체의 변형보다

실제사람과 비슷한 인체에서 나오는 흑이 현실과 비슷하게 보여서 작품의 의미를 더 강조시킨다. 본인이 실제로 입었던 옷과 같은 형태로 제작, 채색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작품에서 주제가 되는 흑은 강렬한 빨간색<sup>12)</sup>을 사용하였다. 우리 모두는 유년시절 뛰어 놀다 다친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무릎이나 팔꿈치가 까져 붉은 피와 함께 통증으로 남은 기억은 자신도 모르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작은 상처의 피만 보게 되어도 과거 통증으로 인해 아팠던 기억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떠올라 반응하게 된다. 빨간색만 보고도 겁나고 불안한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도판 1> 혈연- 남매, 1996



<도판 2> 혈연- 대가족, 1999

중국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화가 장샤오강(1958년~ )은 중국인의 역사와 마음을 무채색과 붉은색의 대비를 통해 심리적인 방식으로 그리는 작가이다. 장샤오강의 작품 ‘혈연-대가족시리즈’ <도판 1>, <도판 2> 는 60~70년대 정치적,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시대배경과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전후로 자신이 처한 시대의 정치적 무력감을 우연히 발견한 옛 사진을

12) 빨강(Red), 빨간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정지, 금지, 위험, 경고를 뜻하여 방화표지, 금지 표지, 소화기, 경보기, 긴급 정지표지 등에 쓰인다. 자극이 강렬하여 심리적으로 정열, 흥분, 적극성, 광기를 표현하는데 쓰이며, 태양, 불, 피, 혁명을 상징한다. 색채용어사전, 2007, 도서출판에림

재현하면서 보여준다. 회색 혹은 청회색의 배경에 무표정한 인물의 얼굴을 배치하고 혈연을 연상시키는 붉은 선과 과거의 상처 혹은 흔적을 암시하는 붉은 얼룩은 격동의 시대를 산 중국인과 중국사회의 고통과 절망을 나타낸 자화상이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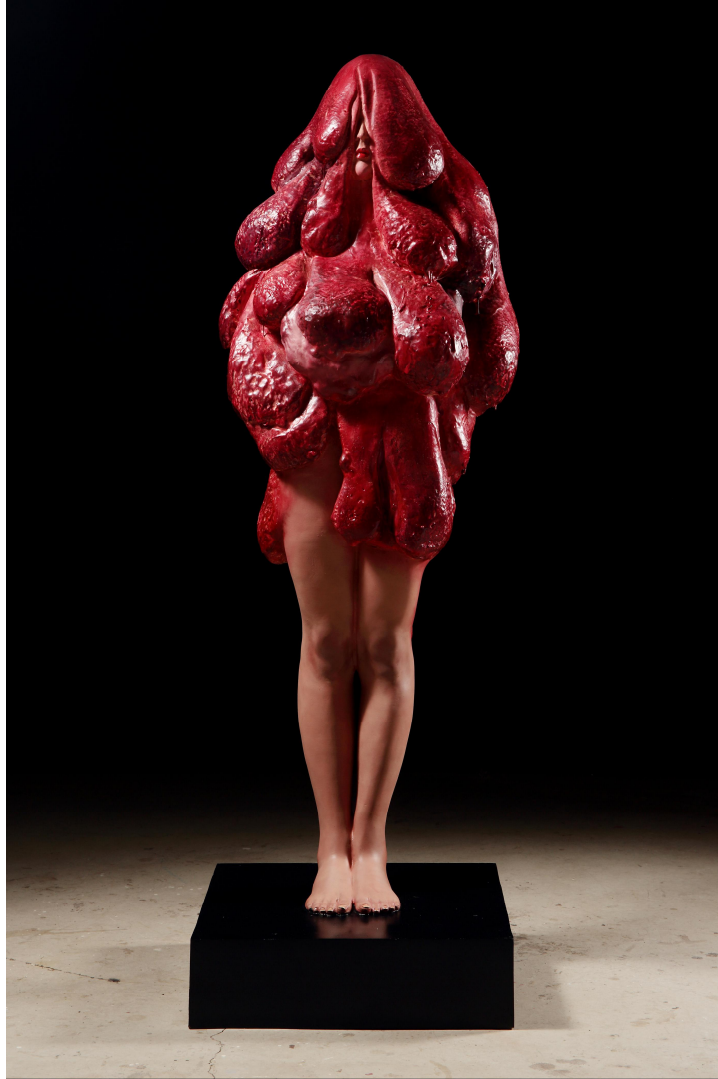
장샤오강이 작품에서 사용한 붉은색의 흔적은 혼란스러웠던 시대에서 갈등하고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색으로 사용한 것처럼, 본인도 붉은색의 사회적인 인식과 내면의 아픔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붉은색의 흑으로 묘사하였다. 【작품 4】 , 【작품 5】 , 【작품 6】 , 【작품 8】 에서 붉은 흑에 묘사된 세포무늬의 표현은 유년시절 엄마의 암에 대한 공포로 시작되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암세포처럼 퍼져 잠식되어가는 본인의 트라우마를 함축적으로 담아내었다.

본인은 이처럼 작품형성배경에서 나타난 유년시절의 불안했던 정서와 상처받은 인간의 심리상태를 색을 통해 더욱 부각시켜 숨겨왔던 내면의 아픔을 공유하고 극복하려 한다.

---

13) 장샤오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 3. 작품분석



【작품 1】 잠식되다

## 【작품 1】 잠식되다

제작년도 : 2017년

작품크기 : 59x50x183(cm)

작품재료 : 아이소핑크, 우레탄, 아크릴물감

###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후 아이소핑크를 열선으로 잘라낸다.
2.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3. 강도를 위해 조형된 아이소핑크위에 스티로폼코팅용 우레탄으로 코팅한다.
4.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작업을 한다.

### 작품설명

본인은 인체에서 기형적으로 변형된 형태를 보여주는 흑을 스트레스와 죽음에 대한 불안한 감정의 응어리로 보았고, 억제된 내적감정을 대변하는 매개체로 표현하였다. 【작품 1】은 본인이 유년시절 느꼈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악몽에서 갖고 온 이미지이다. 몸속에서 아픔의 응어리가 점점 쌓였고, 한계를 넘어선 응어리는 몸 여기저기 ‘흑 덩어리’로 배출되어 온 몸을 뒤덮는다. 얼굴의 절반이상이 흑으로 가려 앞을 보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과 고립된 느낌을 준다. 본인의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정도로 흑으로 뒤덮임은 잃어버린 자아를 뜻한다.



【작품 2】 연결

## 【작품 2】 연결

제작년도 : 2017년

작품크기 : 21x45x53(cm)

작품재료 : F.R.P, 아크릴 물감

###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후, 이를 토대로 점토작업을 진행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를 이용하여 겉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F.R.P)를 발라 굳힌 후 석고로 된 겉틀에서 분리한다.
3. 겉틀에서 분리된 원형작업에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작업을 한 후 바니쉬로 코팅한다.

### 작품설명

【작품 2】는 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스트레스가 되어 심리적 불안으로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을 대변한다. 사회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는 스스로를 감아먹고 제어하지 못한다. 손과 발이 묶여 어정쩡한 자세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형태는 마치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과 같은 모습처럼 보인다. 90도로 꺾인 몸은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과 달리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 자세로 보인다. 마치 높은 분에게 깽뚫하게 인사를 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말뚝 박기 놀이의 자세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인사나, 놀이의 행동에서는 잠깐 취하는 자세이지만 【작품 2】는 원래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손과 발이 하나의 세포처럼 연결되어 있다. 얼굴에는 피가 쏠려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관객을 향한 시선은 도움을 바라는 것 마냥 절박해보이고 애처롭다.



【작품 3】 사색

### 【작품 3】 사색

제작년도 : 2017년

작품크기 : 64x51x67(cm)

작품재료 : F.R.P, 아크릴 물감

####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후, 이를 토대로 점토작업을 진행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를 이용하여 겉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F.R.P)를 발라 굳힌 후 석고로 된 겉틀에서 분리한다.
3. 겉틀에서 분리된 원형작업에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작업을 한 후 바니쉬로 코팅한다.
5. 실제 의자사이즈를 측정 후 작품 비율에 맞게 합판을 절단 후 조립한다.

#### 작품설명

유년시절 죽음의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함으로 위축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불안한 감정은 심리적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심리적 위축은 자존감을 낮추게 해 사회적 장애로까지 갈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초 단위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을 되돌아 볼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준비처럼 살아간다. ‘힐링’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인가 익숙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피로감이 사회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현대인의 간절한 외침이다. 2014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멍 때리기 대회가 사회에 힐링이 필요한 대표적 예이다. 멍 때리기 대회는 빠른 속도와 경쟁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벗어나게끔 하려는 것

이 멍 때리기 대회 취지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2시간동안 사회의 압박과 경쟁에서 벗어나 아무 생각 없이 온전히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치유인 셈이다.

작품에서 근심, 상처, 아픔의 무거운 혹 덩어리는 손에서부터 뺏어져 나와 무거운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는다. 심리적 불안함과 고립감은 이렇게 우리를 꿈쩍없이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둔다. 멍 때리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이 작품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작품 4】 눈물

## 【작품 4】 눈물

제작년도 : 2017년

작품크기 : 30x17x89(cm)

작품재료 : F.R.P, 아크릴 물감

###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후, 이를 토대로 점토작업을 진행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를 이용하여 곁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F.R.P)를 발라 굳힌 후 석고로 된 곁틀에서 분리한다.
3. 곁틀에서 분리된 원형작업에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작업을 한 후 바니쉬로 코팅한다.

### 작품설명

인간에게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눈물'을 통해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보여준다. 내면의 슬픔이 암세포처럼 번져 기형적인 형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경직된 자세와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울고 있는 모습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모순된 표현이 떠오른다. 얼굴에는 세포모양의 혹들이 눈물자국으로 퍼져나가고, 발등에는 눈물이 쌓여 혹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여준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보내는 슬픔의 표현방식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타인에게 개인의 아픔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아픔을 감당하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 5】 반지

## 【작품 5】 반지

제작년도 : 2017년

작품크기 : 23x50x95(cm)

작품재료 : F.R.P, 아크릴물감

###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후, 이를 토대로 점토작업을 진행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를 이용하여 겉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F.R.P)를 발라 굳힌 후 석고로 된 겉틀에서 분리한다.
3. 겉틀에서 분리된 원형작업에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작업을 한 후 바니쉬로 코팅한다.

### 작품설명

사람들은 누구나 꿈이 있다. 본인의 이상향을 위해 불평등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작품 5】는 현대사회에서 받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모습이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개인이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시간이 흘러 망각되어질 지라도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해소하지 못하면 언젠가 수면위로 올라와 인간을 병들고 상처 입힌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직접 대면하고 되풀이하면서 극복해야만 완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당히 서있는 포즈를 취하며 손에서 자라난 감정의 응어리(혹)를 바라보는 여성은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상처와 대면하고 있다. 이러한 치유와 극복 속에서 기형적으로 자라난 혹은 더 이상 징그러운 아픔의 덩어리가 아닌 고통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빛나는 보석이 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작품 6】 잠식

## 【작품 6】 잠식

제작년도 : 2017년

작품크기 : 91x42x13(cm)

작품재료 : F.R.P, 실, 락카 스프레이, 아크릴 물감

###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후, 이를 토대로 점토작업을 진행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를 이용하여 겉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F.R.P)를 발라 굳힌 후 석고로 된 겉틀에서 분리한다.
3. 겉틀에서 분리된 원형작업에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세포느낌을 주기 위해 실과 같은 재료를 합성수지와 섞어 고정한다.
5.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작업을 한다.
6. 보존을 위해 투명 스프레이 락카로 코팅을 한다.

### 작품설명

본인은 만발한 진분홍색의 진달래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는 광경을 본적이 있다. 온 세상에 꽃으로 물들여진 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은 슬픔, 불안, 고통, 아픔 없이 행복, 기쁨만이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보는 것 같았다. 현대인들은 모두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간다. 암울한 현대사회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꿈을 갖고 차가운 현실을 버텨낸다. 내면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붉은 흑들 사이에 마치 진달래꽃밭에서 낮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다. 티셔츠에 꽃으로 덮인 LOVE는 냉혹한 현실을 뒤로 하고 아름다운 진달래꽃이 펼쳐진 유토피아를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품 7】 은폐

## 【작품 7】 은폐

제작년도 : 2017년

작품크기 : 80x108x183(cm)

작품재료 : F.R.P, 아크릴 물감

###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후, 이를 토대로 점토작업을 진행한다.
2. 각 파이프로 용접하여 뼈대를 만든 후, 철망으로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다.
3.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를 이용하여 겉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F.R.P)를 발라 굳힌 후 석고로 된 겉틀에서 분리한다.
4. 겉틀에서 분리된 원형작업에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5.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작업을 한 후 바니쉬로 코팅한다.

### 작품설명

유일하게 본인의 얼굴을 모델로 제작한 **【작품7】**는 본인의 성격과 심리를 그대로 나타낸다.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낮은 자존감은 사회로부터 완벽해 보이고 싶은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 겉으로 보여주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무늬는 실제와 같이 명암이 있는 꽃이 아닌 프린트된 꽃의 형태처럼 그려졌고, 그마저도 공간감이 있는 배경이 아닌 무작위로 배치되어 마치 군대에서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위장술같이 보인다. 꽃무늬 망토가 벗겨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망토를 꼭 잡은 손과 살짝 내밀은 얼굴 틈사이로 붉은 흑이 자리 잡고 있다. 화려한 망토 속으로 숨기고 싶은 본인의 상처받은 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작품 8】 꽃다발

## 【작품 8】 꽃다발

제작년도 : 2017년

작품크기 : 21x34x79(cm)

작품재료 : F.R.P, 아크릴 물감

###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후, 이를 토대로 점토작업을 진행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를 이용하여 곁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F.R.P)를 발라 굳힌 후 석고로 된 곁틀에서 분리한다.
3. 곁틀에서 분리된 원형작업에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작업을 한 후 바니쉬로 코팅한다.

### 작품설명

【작품5】와 같은 맥락의 작품이다. 응축된 내면의 슬픔이 흙으로 변형되어 수갑을 찬 것처럼 두 손을 묶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작품 8】을 멀리서 보면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착각하게 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멀리서 아름답게 꽃다발을 들고 있던 여자는 가까이 들여다보니 미소가 아닌 무표정으로 흙으로 변한 손을 쳐다보고 있다. 내면의 아픔을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하려는 마음으로 간절히 상처를 대면하고 있다.



【작품 9】 흑 에세이

## 【작품 9】 흑 에세이

제작년도 : 2017년

작품크기 : 각 26x24(cm)

작품재료 : 나무, 레진, 아크릴 물감

### 제작방법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 한다.
2. 합판으로 틀을 만든 후 아크릴물감으로 채색한다.
4. 조형용 퍼티로 흑 모양을 드로잉에 맞게 조형한다.
5.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 한 후 보존을 위해 투명색으로 코팅한다.

### 작품설명

앞에서 말한 흑의 의미는 스트레스와 죽음에 대한 불안한 감정의 응어리이고 억제된 내적감정을 대변하는 매개체로 표현하였다. 흑이란 정상조직이 아닌 체내의 덩어리라는 의미로 인체에 생겼을 때 불필요한 존재로 치부된다. 본인은 이러한 흑의 의미를 인체와 사물에 비유해서 표현하였다. 흑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존재라는 의미로 접근하였다. 지나다니는 통로를 흑이 가득차서 이용할 수 없음과, 흑으로 막힌 변기, 흑으로 가득차서 담을 수 없는 컵, 흑으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는 선풍기 등 인체와 사물로도 흑을 결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내면의 상처가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존재임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 II. 결 론

본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 현대인에 주목한다. 사회에서 개인의 고립으로 인한 불안함과, 미래의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은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나약함을 들킬까봐 표출하지 못하고 꼭꼭 숨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내면의 상처를 담아내려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아픔의 응어리로 정상조직이 아닌 ‘혹’이라는 인체에서 불필요한 체내의 덩어리로 표현하였다. 혹은 의학적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양이며, 불교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괴롭히고 산란하게 하는 번뇌로 표현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혹의 이미지를 통해 불안으로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고뇌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안한 감정으로 발생된 내면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내면의 아픔을 다독이는 치유와 극복의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감정을 형상의 표현과 구성, 혹의 이미지만으로 표현하는 것과, 상처의 치유와 극복의 방향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이미지를 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끝으로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됨으로서 본인 작업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현대사회에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내면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집요한 관찰과 연구로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2009년

### 《 번역본 》

- 마크 윌린,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정지인 옮김, 심심, 2016
- 셸던 솔로몬, 제프 그린버그, 톰 피진스키 공저 『슬픈 불멸주의자』, 이은경 옮김, 흐름출판, 2016
- 존 브래드쇼, 『가족』, 오제은 옮김, 학지사, 2006
-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안병웅 풀어쓰, 풀빛, 2006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 입문/꿈의해석』, 김양순 옮김, 동서문화사, 1988

### 《 인터넷 사이트 》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네이버 지식백과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 대기원시보 <http://www.epochtimes.co.kr/>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 ABSTRACT

A Study on the Physical Expression about the  
Psychological Anxiety of Modern People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Oh, Nu Ri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se days there are few people who can answer "I'm OK" lightly to the question "Are you OK these days?" The media is continually reporting cases dealing with the college students' difficulty in finding a job and the difficulty on the economic uncertainty. Modern people bear a number of efforts and pains to meet somebody's expectation and not to lag behind in the extremely keen infinite competition society. Modern people raise the lump in their heart by pile up the uncured scar one by one in the society that the individual pain is taken for granted for more development and

profit creation. This lump in the heart leads to the mental anxiety such as the stress, frustration, depression, and panic disorder, and they live the devastated life in the sense of shame with the psychological scare and the lack of confidence.

The author focused on the pain and anxiety of hurt modern people in the infinite competitive society and intended to show the effect of the trauma caused by the repeated scar on individuals through the transformed human body. Also, the focused on enabling them to overcome the scar by themselves without avoiding the anxiety and scar by facing themselves, and on the psychological growth of proceeding forward by overcoming the trauma through the heart healing.

This thesis is composed of the works published before the request of master degree in 2017 as follows.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the study direction and the purpose of the author's work were described.

In the body of chapter 2, the work formation background was described regarding the fear and trauma on the death the human had, and the body transformation expression method and the color expression caused by the psychological anxiety were described, and the author's work was analyzed individually on the basis of it.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e contents of this thesis was organized and the future work direction was suggested.